

S-Oil, 담도폐쇄증 어린이 3000만원 지원

S-Oil은 6월2일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운데 간이식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 4명에게 간이식 수술비 1억2000만원(각 3000만원)을 전달했다고 밝혔다.

담도폐쇄증은 선천적으로 간외담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되는 희귀질환으로, 간 손상에 따른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.

S-Oil 김동철 사회봉사단장은 “병실 혹은 가정에서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의 작은 정성으로 밝은 웃음을 다시 찾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S-Oil은 2009년부터 임직원들이 월급여에서 1만원 미만의 잔돈을 떼어 모금한 돈과 회사 기부금으로 2년간 총 26명의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02>